

구례 산수유마을의 花사한 봄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인 17일 오후 구례 산동면 산수유마을에 노란 산수유꽃이 만개해 관광객들의 시선을 잡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하늘길 끊기는 광주~김포 대안 없나

대한항공 27일 '철수'... 인천행 KTX 증편도 '난관'

광주시, 대책 마련 고심

광주시가 대한항공의 광주~김포 항공편 폐지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력하게 검토했던 광주~인천 고속철도(KTX) 증편의 경우 선로 용량이 포화상태에서 객차확보가 어려워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하루 2편 운행하던 광주~김포 국내선을 적자를 이유로 오는 27일부터 모두 철수할 예정이다. 이 노선 이용객들은 인천공항이 목적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는 별도 노선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KTX 증편을 검토 중이다. 오전, 오후 1회씩 하루 상행선 2회, 하행선 2회 등 모두 4회씩으로 늘리는 안이다.

그러나 여건이 녹록지 않다. 우선 인천공항으로 통하는 선로의 용량이 편도 20편, 왕복 10편이 최대인데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부산, 대구, 광주, 진주, 여수 등 각지에서 KTX가 밀려 들면서 가동률이 풀 상태다.

특히 KTX 전용선로가 없어 공항철도 선로를 이용하다보니 하루 20만명이나 이용하는 서울역~인천공항 간 공항철도가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는 쉽이 쪽 달리기 때문에 여러역을 거쳐야 하는 공항철도가 비켜줘야 운행할 수 있어 공항철도 입장에서 난감하다"며 "공항철도의 운행 간격을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 KTX 광명역에 공항리무진을 집중 투입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객차 보유량도 걸림돌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한 대를 특정 노선에 새로 투입하면 다른 노선에서 생생한 한 대를 빼야 하는 실정"이라며 "새로 구입하지 않는 증편은 어렵다"고 말했다.

수요 부족도 문제다. 호남선 KTX에는 20량 931석 규모의 차량이 투입되는데 광주~인천공항 이용객은 한 달에 2000명 안팎에 불과하다. 객차 1량당 좌석 100명 꼴이다.

시 관계자는 "KTX 증편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 번수와 사정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고민"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경선 '운명의 金·土·日'

① '선택 4·13' 총선 D-26

아권의 뒷발인 광주와 전남에서 주도권 쟁탈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이 최종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한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들의 생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치러진 더민주의 당내 경선에서는 현역 15명 가운데 5명이 경선에서 떨어지는 등 당내 경선이 현역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주·전남 현역의원들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면〉

17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 19명중 2명만이 컷오프(공천배제)된 가운데 이번주 경선 결과에 따라 현역 공천 물갈이 폭이 최종 결정될

뉴스분석 '一與多野 구도' 정립 ▶ 5면

신학기 초·중·고 독감 비상 ▶ 6면

新평도유람-강원 산나물 축제 ▶ 18면

더민주 19일까지 안심번호 활용 ARS 투표

국민의당 18~20일 숙의배심원제·여론조사

현역의원 9명 중 몇명 살아남을까 관심 집중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의 광주·전남지역 모든 경선을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로, 국민의당은 현역 의원이 경선이 참여하는 선거구는 100% 숙의배심원제로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더민주의 경우 광주 서구갑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박해자 의원과 송갑석 정책위 부의장이 최종 후보 자리를 놓고 경선을 벌인다.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되며, 결과는 19일 밤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전남에서는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에서 3선에 도전하는 이윤석 의원과 서삼석 전 무안군수의 경선이 이날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당 안팎에서는 2곳을 '경합' 지역으로 보고 있다.

또한, 순천은 김광진 비례대표 의원과

노관규 전 순천 시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신문식 비례대표 의원과 광동진 예비비후보가 각각 더민주 공천장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어 비례대표 의원들의 생환 여부도 주목된다.

더민주의 전남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제외한 9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18일 밤 11시에 발표할 계획이다.

국민의당도 현역과 비 현역간 3개 지역구에서 경선이 실시된다. 동남구갑에서는 3선에 도전하는 장병완 의원과 서정성 전 안철수 의원 보좌관, 정진욱 전 한국경제 TV 앵커 등이 겨룬다.

광산구갑은 4선에 도전하는 김동철 의원과 김경록 당 대변인,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그리고 광산구을은 권은희 의원과 고원 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교

조교수, 최선옥 광산미래경제포럼 상임고문 등이 막판 공천경쟁을 벌인다.

선거구가 합쳐진 고흥·보성·장흥·강진에서는 김승남 의원과 황주홍 의원, 김철근 동국대 사회과학대 겸임교수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현역 의원 2명이 경선 대상자로 포함돼 현역 의원 최소한 1명은 탈락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황 의원간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심원단 1차 투표에서 1위가 40% 득표를 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가 진행되는 점도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숙의배심원단 제도 자체가 현역 의원들의 인지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 현역 의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신인 가산점 역시 현역 의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신인 가산점 예다, 3자 구도, 숙의배심원제 등이 현역에 결코 유리하지 않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경전선 광양~부산 복선화 공사 7월 마무리

광주~순천~광양 구간 복선화는 기약 없어

광주와 부산을 잇는 경전선 경남구간(부산~광양) 복선화 공사가 올해 마무리된다. 그러나 경전선의 또 다른 한 축인 전남구간(광양~순천~광주)의 복선화 사업은 기약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전선 광양~진주 구간이 올 7월 복선화 사업을 마치고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광양~진주 구간은 기존 66.8km의 단선 철도에서 51.5km의 복선철도로 거듭난다. 단선에서 복선화되면 곡선이던 일부 구간이 직선화되면서 총 길기도 짧아진다. 운행시간도 무궁화호 기준 현재 73분에서 42분으로 31분 단축된다. 선로 용량도 하루 평균 36회에서 157회로 늘게 돼 물류 비용이 줄게 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경전선 광양~진주 구간 복선화사업은 지난 2003년 착공해 총사업비 1조

1162억원이 투입됐다. 광양~진주구간 복선화사업이 마무리되면 광주 송정역과 부산 삼랑진역(300.6km)을 잇는 경전선의 경남구간은 모두 복선화가 완료된다.

공단 관계자는 "경전선 복선화 공사가 동쪽에서 서쪽(경남→전남)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광양~순천~광주송정역 구간도 복선화가 추진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착공시기는 잡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깊이 있게 스며들어 찬란한 빛이 되다

헤라 오일 세럼 매직 포뮬라

아름다움에 깊이를 더하세요.
 헤라만의 셀-바이오 모이스트™ 기술이 만들어 낸
 촉촉한 미세오일입자가 걸피부는 신뜻하게, 속피부는 촉촉하게-
 단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궁극의 보습을 선사합니다.
 느껴보세요, 오일과 세럼의 마법 같은 만남

HERA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고객센터: 080-023-5454(수신요금부담) www.hera.co.kr